

## # 언어와 매체 - 매체 살펴보기.

매체는 굉장히 쉽다.

지문을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될 뿐더러,  
지문을 읽어야 하는 경우에도 '친절한 발췌'가 가능하다.  
매체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살펴보고 하자.

### 1. 언어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

매체에선 종종 문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. 하지만 이는 문법적 지식을 묻는 것 처럼 보일 뿐 **문법적인 요소는 판단 부분이 아니다**.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며 이해 해보자.

43. ㉠-㉥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종결 어미 '-버니다'를 사용하여,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.
- ② ㉡: 특수 어휘 '모시다'를 사용하여,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.
- ③ ㉢: 선어말 어미 '-시-'를 사용하여,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.
- ④ ㉣: '있으시다'를 사용하여,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'6789 님'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.
- ⑤ ㉤: '말씀'을 사용하여,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.

정답: ⑤ 화자가 아닌 청자를 높이고 있음.

- ㉠ 매주 수요일,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'여행과 함께'를 시작합니다.
- ㉡ 오늘도 여행가 안○○ 님을 모셨습니다.
- ㉢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,
- ㉣ 실시간 댓글로 6789 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.
- ㉤ 네,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의 로만 가능합니다.

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,

종결 어미 '-버니다' / 특수 어휘 '모시다' / 선어말 어미 '-시-' / '있으시다' / '말씀'

같은 앞 부분의 문법적 개념에서는 **오답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*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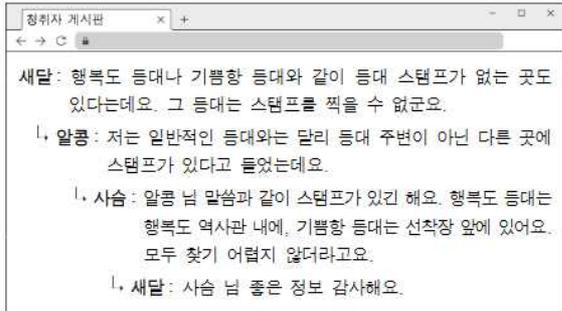
따라서 우리는 **누굴 높이는지** 라는 뒷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.

## 2. 일단 문제 먼저 보자

매체는 문제 먼저 봐야할 이유가 명확하다.

- 1. 지문을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.

41. 다음은 (가)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.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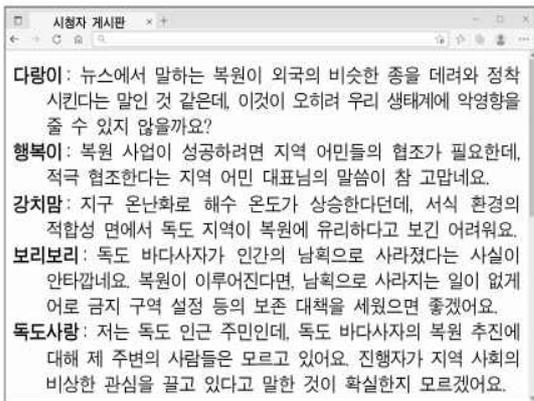


본 문제의 경우, 알콩과 사슴이 새달의 정보를 수정해주고 있는 모습이다.

따라서 정답은 1번

- ① 방송 내용에 대한 '새달'의 잘못된 이해가 '알콩'과 '사슴'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.
-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'새달'과 '알콩'의 공통된 생각에 '사슴'이 동조하고 있다.
- ③ 방송을 듣고 '새달'이 느낀 감정을 '알콩' 및 '사슴'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.
-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'새달'과 '알콩'의 서로 다른 생각이 '사슴'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.
- ⑤ 방송 내용에 대한 '새달'과 '알콩'의 긍정적 감정이 '사슴'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.

41. 다음은 위 뉴스에 대한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. 시청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

행복이는 2번 선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.

따라서 정답은 2번

- ① '다량이'는 '전문가'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.
- ② '행복이'는 '지역 어민 대표'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.
- ③ '강치맘'은 '관계자'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.
- ④ '보리보리'는 '기자'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.
- ⑤ '독도사랑'은 '진행자'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
41.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을 통해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발송된다.
- ② 뉴스레터는 구독자에게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발송된다.
- ③ 뉴스레터 구독자는 '전문 보기'를 통해 이전 호 뉴스레터를 볼 수 있다.
- ④ 뉴스레터 구독자는 '제보하기'를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.
- ⑤ 뉴스레터 구독자는 이번 호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.      3번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...

이렇듯 매체에서는 지문을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한다.

-2.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경우

중요한 지점은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지문들도 정말 쉬운 발췌가 가능하다는 것! 간단히 발췌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.

40. (가)

① ㉠:

관련

② ㉡:

맞는

③ ㉢:

제시

④ ㉣:

의문

⑤ ㉤:

였다.

42. (가)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 
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

① '따끈따끈 소식'에는 대화를 반영하여, 운 내용이 포함되었다.

② '따끈따끈 소식'에는 '윤찬'의 대화를 반영·관련된 내용이 포함되

③ '사람을 만나다'에는 '민하'의 대화를 반영·내용이 포함되었다.

④ '사람을 만나다'에는 '수민'의 대화를 반영·내용이 포함되었다.

⑤ '학생회 소식'에는 가·대화를 반영하여, 학습 내용이 포함되었다.

이렇게, 친절하게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.

40번의 경우는 가, 나, ... 에 가 찾아보면 되고,

42번의 경우에는 '따끈따끈 소식', '사람을 만나다', '학생회 소식'에서 찾아보면 된다!

43. '준호'의 글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소제목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.
- ②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.
- ③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.
- ④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을 부각하고 있다.
- ⑤ 화살 모양의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현황의 일부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.

이렇게 지문의 위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, 선지의 내용을 지문을 스캔하며 파악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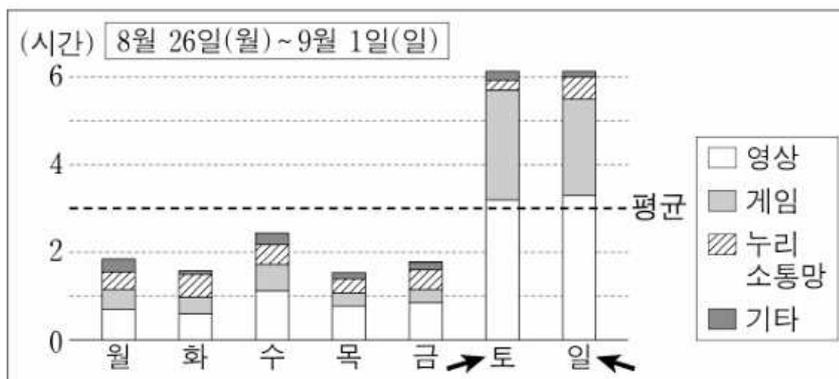
- ①. 소제목 ->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

### 《스마트폰 사용 현황 및 분석》

### 《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》

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- ②. 그래프 자료 -> 사용 시간 정보 + ⑤. 화살표 사용 -> 일부에 주목



마찬가지로 틀리지 않았다.

③. 글자 크기와 굵기 변화 -> 사용 시간 제시

지난주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**3시간 정도**였어요.

틀리지 않았다.

④. 정렬 방식 변화 ->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사항

‘요리 공부 시간 늘리기’  
 ‘요리 연습 영상 일지 올리기’  
 ‘요리로 소통 넓히기’

정렬 방식 변화는 맞지만,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사항이 아니기에 정답!

이렇듯 매체 파트는

**문제 먼저 보기 -> 선지 내용 파악 후 지문 훑기의 과정**

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.

### [추가자료] 주요 매체에 대한 이해

암기를 위한 자료가 아닌,

이런 매체의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자료.

- 뉴스

기자, 진행자, 전문가 등장. 뉴스 내 인물들 양방향 소통

하지만 시청자와 방송 간 일방적 소통

자막(배너)의 폰트 크기로 내용 강조 가능

다음 방송 제공으로 시청자 관심 유도

이전 내용 다시 보기 불가능

시청각 자료의 혼합

- 화상 회의

비대면 의사소통. 말 대신 채팅 등 활용 가능

공유 - 화면공유, 실시간 파일 공유 = 시간 절약 가능

소회의실 제작 등 회의 프로그램 내 여러 기능 사용 가능.

쌍방향 소통 가능

여러 매체 전달 가능

- 메신저 앱

이모티콘 등의 비언어적 매체 활용 가능

전반적으로 화작 토의 지문과 비슷함.

이미지 파일 전송 가능,

하이퍼링크 제시 가능,

[답장] 기능

위치 등의 정보 전송 가능.

매체 파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지만,

디테일 하나하나 닦는다면 그래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기에 자료를 제공한다.

'매체'에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자!